

개성상인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출판계에 뛰어들어 팔순 넘긴 개성상인



높게 원고가 쌓여 있는데 고려사에 관한 원고야. 처음 출판사를 시작하려는데 너무 크단 말이야. 힘에 벅차다고 다른 원고를 주십사 했더니 당시 청량리에 있던 서울대 예과에 자기 제자가 있으니 찾아가 보래.”

1946년 동화출판사라는 이름으로 처녀

개성출신으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성상인들에게 출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험천만한 벤처였기 때문이다.

“출판인들은 책을 내기 전에는 마음이 부풀어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많이 안 팔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깐 모험이야. 철저히 실리를 따지는 개성상인이 그렇게 위험한 사업을 왜 하려고 하겠어.”

하지만 개성에서 나고 개성에서 공립 상업학교까지 나온 손홍명(83·현 세계문화사 대표) 옹은 출판업을 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좀더 배웠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와세다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화신산업주식회사 지업부를 다니면서 평소 품고 있던 출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손 옹은 해방 후 진단학회 이병도 회장의 강연을 따라다녔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병도 선생 책하나 출판하면 될 것 같더라구. 그래서 뜻을 전하고 성북동으로 찾아갔더니 내 키보다

출판한 책이 이병도 선생의 제자가 외국의 역사이론서를 번역한 《역사관》이었다. 그래도 초판 5,000부를 찍고 재판·3판을 찍었으니 크게 성공한 셈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손 옹은 출판업을 하면서 두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복 직후만 해도 양주동 선생과 함께 우리 손으로 작업한 책을 출판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중학생을 위한 교양서 《동양orient》 1, 2, 3권을 만들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책이 나온 날이 1950년 6월 25일이었다.

“책을 과고다공원 뒤에 쌓아놓고 피난길에 올랐지. 전쟁이 끝나고 일찍 서울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신청하라고 그래. 당시 서울대 중국문학부장을 하던 차상원 선생이 있었는데 무작정 찾아가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와줘야지 하며 흔쾌히 계약을 해주더라고.”

이때부터 가지게 된 이름이 문리사였다. 현재의 세계문화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건 1977년의 일이었다. 당시 박정

희 정권이 ‘탈세를 누명으로 돈을 뜯어간’ 김인정교과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돈 1억천만 원을 탈세했다는데 지금돈으로 하면 100억 원은 되는 돈이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받았지만 손 옹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다.

“세계문화사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민 간다며 나보고 말으라잖아. 그래 아픈 기억도 잊을 겸 세계문화사로 바꿨지. 처음 문리사라는 이름을 지을 때 文道하고 이理도 하겠다는 야심에 찬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사무실에 가면 그때 간판이 있어.”

손 옹은 여생의 꿈이 있다면 현재 부수로 단어를 찾는 방법을 탈피해 자자를 통해 단어를 찾는 자모식字母式 한자자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한문교과서를 편찬한 경험을 살려 한문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천자문을 개발해 실용신안 특허(제0218707호)를 받기도 했다. 천문, 인륜, 문화 등 32개 주제별 항목에 걸쳐 골고루 요즘에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 250구를 선정해 1,000자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새로운 천자문에는 출판창달出版暢達이라는 말도 들어 있다. 한국출판문화가 번영했으면 하는 손 옹의 바람을 담고 있기도 하다.

개성상인의 아들에서 한문을 연구하는 이름 없는 출판인까지 손 옹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60여 년에 가까운 현역출판인으로서 그의 삶 또한 우리 출판의 역사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